새로운 삶이 거기 있었지요

—동일방직 추송례 씨를 찾아서

박승옥

추송례 | 1957년 완도에서 태어났다. 동일방직노동조합 지부장 직무 대리를 맡았고, 부산에서 노동운동을 했다. 현재 부산에서 빈민들의 자활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어김없이 봄은 오는가」라는 글로 제10회 전태일문학상 생활글 부문을 수상했다.

진화는 진보가 아니다. 단지 변화일 뿐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진화를 진보와 동일시한다. 생명이란 진실로 우연이다. 폐차장에 있는 자동차가 30억 년 동안 비바람을 견디며 기다린다고 해서 우연히 새 자동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바로 그렇게 우연치고는 기막힌, 진실로 경이로운 우연이기 때문에 생명이란 더욱 소중하게 마음껏 누려야 할 지상의 축복이다. 마찬가지로 진화 또한 우연의 산물이다. 어쩌다 포유류 가운데 한 종이 호모 사피엔스의 길로 들어서, 어쩌다 무리 생활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 종이 수많은 세월을 거쳐 오늘날의 인류로 변화했다.

역사의 진행과 사건도 우연이다. 우리는 이 우연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은 역사의 인과관계,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되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의 세계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간 삶의 반영이다. 무엇보다도 역사는 일직선의 진보가 아니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 하나 하나의 소중한 삶이다. 그동안 역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무수한 책이나 이론에서 생생한 인간 삶의 숨결을 느끼지 못 했다면, 이는 이른바 역사가라고 자부하는 전문가들이 있지도 않은 유령의 역사 법칙을 붙잡고 있으면서 죽어 있는 역사를 기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도나 정치 위주로 역사를 설명하다보니, 정작 역사를 만들고 역사를 이끌어 왔던 일반 민중들의 원시림 같은 생생한 체험과 삶의 이야기가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던 것이다. 이런 일반 민중의 삶이 살아 있을 때 역사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오늘날의 위기에 대한 현명한 대안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 현대 문명의 위기를 찬찬히 살펴보면, 그 바닥에는 사람의 삶의 방식 자체에 위기의 가장 큰 핵심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는 사람 그 자체에 있다. 그리고 모든 대안과 해결책 또한 사람 자체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의 역사 또한 무수한 우연으로 얽혀 있다. 이제는 역사를 당위나 법칙으로 환원해오는 습관과 낡은 구호를 버릴 때가 왔다. 민주화운동 하면 몇몇 유명짜한 인사나 사건들을 거론하고, 역사의 발전이니 고난에 찬 투쟁이니 하는 상투어 몇 마디 던지는 것으로 끝나기 일쑤이다. 그러나 1970~80년대에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걸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독재와 억압에 맞서 싸웠다. 그 당시에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한 행위와 사회 정의를 위한 행위가 동일한 것이었다. 그 당시에는 민주화운동이란 곧 새로운 대안의 인간관계, 새로운 대안의 사회정의와 평등 사회로 가는 지름길 그 자체였다.

우리는 이제 민주화운동사를 비롯한 역사의 전면에 이같은 일반 민중의 삶의 숨결을, 그 생생한 삶의 육성을 되살려 내야 한다. 어쩌면, 그것이 역사를 지배자·강자 중심의 역사, 즉 죽어 있는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살아 있는 '우리들의 역사'로 재생시키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

여기 지금 그런 역사의 재생을 한 사람이 말하고 있다. 지금부터 25년 전 나이 어린 여성 노동자들 수백 명이 우리도 인간이며 똥물을 먹고 살 수는 없다고 울부짖던 일이 있었다. 또 경찰이 연행해가려고 하자 농성 중이던 여성 조합원들이 옷을 다 벗어버리며 항의하던 세칭 나체시위 사건도

있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사건을 '동일방직 사건' 이라고 불렀다.

이들이 왜 이런 싸움을 벌여야 했으며,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감옥에 갔다 온 뒤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지난 일에 대한 회고 차원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분명히 지난날의 삶은 오늘의 삶에 어떤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록은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추송례 씨의 생애를 통해 우리의 현대사를 더듬어 올라가 보는 탐사 여행기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기록은 역사가 추송례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일종의 도전이다. 깨어 일어나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고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라는 일종의 풍경 소리이다.

이틀에 걸쳐 이뤄진 대담은 추송례 씨가 요즈음 열심히 스킨스쿠버를 배우고 있는 부산의 태종대 바닷가에서, 산책길에서, 어린이 대공원에서, 산을 오르면서 자연 속에 묻혀 치료하듯이 한 것이었다. 우리는 아주 특이한 구술 대담을 한 셈이다. 줄곧 걸으면서 얘기했고, 소풍 나온 아이들처럼 추송례 씨가 싸온 군고구마니 과일이니 주전부리를 틈틈이 먹기도 하면서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얘기를 이어나갈 수가 있었다.

●저는 1957년 1월 1일 6남매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3남 3녀인데 제 위로 언니가 하나 있고, 다 동생들입니다. 제 자랑이지만 그 동생들 제가 다 거두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설날에 태어났는데, 거기다 딸이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고향 사람들은 저를 아름다울 미(美) 해서 미순이가 아니고 그냥 미운둥이라고 미순이라고 불렀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미워하던 구박덩어리가 제 부모 다 보살피고 집안 일으켰다고 모두 대견해 하지요.

●제 고향은 완도입니다. 장보고가 태어나 진지를 구축했던 청해진이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완도는 전부 어업이 생업이었습니다. 보세요. 섬에 농사될 만한 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언덕배기 같은 데 개간하다 굴러 떨어지면 바다까지 가버릴 텐데. 우리는 보트보다 조금 큰 작은 목선 하나 가지고 김을 떠서 살았지요. 그때는 양식이란 게 없었고, 다 자연이었습니다.

아이고, 바다만 보면, 김 얘기만 나오면 지금도 진절머리가 납니다. 김 말리는 건조장을 건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땅이 없으니까 집에서 한참을 걸어가 냇가에 건장을 만들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네 살, 다섯 살부터 한겨울 새벽 4시경에 억지로 일어나 거기까지 살을 에는 바람 맞으며 가려면 그 순간부터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 어린 마음에도 정말 죽을 수 있으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엄마가 얼음을

깨고, 물에다 푼 김을 뜨면 우리가 그걸 들어내주고 아버지가 건장에 그걸 꼽아서 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손이 꽁꽁 얼어 가지고 손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엄마가 굼뜨다고 김 뜨는 대로 꿍 때리고, 말도 마십시오. 그 일이 끝나야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엄마, 아버지는 또 물때를 맞춰 바다에 가서 김을 뜯어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요. 학교 한두 시간 지각하는 것은 다반사였지요.

우리가 그 짓을 하면서 컸습니다. 정말 그때 저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밥까지 떠 먹여 줘야 될 판이니 참.

●그때 저에게는 초등학교 도서관이 그 어떤 보물보다도 소중했습니다. 도서관이 교장실 바로 뒤편에 있었는데, 책 보는 아이는 하나도 없지 교장 선생님은 어렵지 그러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춥고 얼고 아픈, 죽고만 싶은 나날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학교가 있었고 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책을 읽고 싶다는 마음에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도서관에 있는 책은 거의 다 읽었습니다. 김 하면서도 책 읽고, 이불 뒤집어쓰고 호야불에 책 읽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이불을 홀라당 태워먹기도 했지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는 원수댕이였다니까요. 툭하면 이불 태워 먹어, 옷 태워 먹어, 얼굴 새까맣게 그을리고 눈썹 하나 없지 그런 원수댕이가 없었습니다. 책에 빠져 있다가 아버지가 몽둥이로 내리칠 때까지 모를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아예 제가 책밖에 안 보는 책순이, 공부 제일 잘하는 놈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선생님이 격려도 많이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독후감 이런 대회에서 상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공부는 제가 맨 일등만 했다 아닙니까.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데 나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전남여고에 합격하는 것은 굉장한 명예였습니다. 선생님이 집에까지 찾아와 제발 시험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수십 번을 사정사정했지만, 아버지는 못 보낼 건데 뭐 할라고 그러냐고 거절하는 겁니다. 정말 비참한 심정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도저히 여기서 살아갈 수가 없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 여기 있으면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것도 장담을 못 하겠더라구요. 그 겨울 어느 날 한밤중에 졸업식이고 뭐고, 그냥 짐싸가지고 무작정 인천에서 공장에 다니는 언니 주소 한 장만 달랑 가지고 도망쳐 나와버렸습니다.

그랬다. 추송례 씨가 서울로 올라왔던 1970년대 중반, 아니 경제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60년대와 70년대 내내 그 당시의 십대와 이십대 팔팔한 심장들은 희망이라는 보따리를 안고

도시로, 도시로 모여들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는 더욱 더 고속으로, 누구는 야반도주로, 누구는 어머니가 꼬깃꼬깃 접어준 차비를 받아 눈물바람의 격려를 받으며 농촌을 떠나 도시의 공장으로 희망의 삶을 찾아 이동했다. 농사꾼에서 공돌이, 공순이가 되는 대규모 '계급 대이동' 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쳐야만 했던 현실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었고, 바로 여기서 절망을 이겨내기 위한 온갖 드라마가 연출된다. 그 드라마 가운데 하나가 민주노동운동이었다.

●고생고생해가며 인천 만석동 언니의 자취방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일자리를 찾기까지 얼마나 피눈물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어렵사리 제일 먼저 취직한 공장은 언니가 일하는 대성목재였습니다. 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일하는데 제가 일하는 검사과는 남자가 백 명 정도에 여자는 단 두 명뿐이었습니다. 합판이 원목에서부터 얇게 깍아 수많은 공정을 거쳐 콘베이어벨트를 따라 생산돼 나오면, 검사과에서는 등급별로 나누는 작업을 합니다. 저는 등급 도장을 찍고 하루 생산량 매수를 세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일은 언니가 일하는 중판부나 다른 부서 일에 견주면 일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런 수월한 일을 시키고 월급 준다는 게 상상이 안 갔고 처음에는 월급 받는 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대성목재는 식당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30분인데 그냥 도시락을 각자 싸 가지고 와서 합판 위나 맨바닥에서 간단히 먹고 잠자기 바빴습니다. 특히 야간조는 막 나온 합판 위가 따뜻하니까 거기서 자다가, 합판에 깔려죽거나 눌려죽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나는 거의 점심은 굶고 4시에 회사에서 주는 빵 한 조각으로 때우곤 했습니다.

당시 대성목재 노동자들의 생활은 그야말로 일하는 기계 그 자체였습니다. 주야맞교대로 일했는데, 무슨 꿈을 꾸거나 다른 생각을 해 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언니하고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주간에서 야간조로 바뀔 때 잠깐 마주칠 뿐이었습니다. 사내복지 시설이라는 것은 아예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1만 명 중에서 가장 편한 검사과에서 도장찍고 있는 신세라 해도 달라질 게 뭐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비참하고 이것도 인간의 모습일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무슨 희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로만 나오면 내 삶이 달라지리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또 다시 절망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검사과 사무실은 6층에 있었는데 대성목재와 담벼락 하나 사이에 두고 동일방직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방직이 훤히 내려다 보였습니다. 대성목재는 산 나무 한 그루

없고 살벌하기 그지없는 현장이었지만 동일방직은 정반대로 온통 파랬습니다. 한마디로 동일방직은 영화 속 그림이었습니다. 장미꽃 피어 있지, 나무 심어져 있지, 땅은 전부 잔디로 좍 깔려 있지, 남자들은 축구하고 여자들은 테니스도 치지, 대성목재 사람들은 완전히 노가다 작업복 차림인데 동일방직 사람들은 미니스커트에 기가 막히게 이쁘지, 아 저런 공장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부러워 하니까, 여기 그만두고 동일방직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동일방직 노동자들이 데모하는 것을 봤습니다. 같이 있던 검사과 언니에게 저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언니가 그러더군요. 동일방직에는 노동조합이란 게 있는데 간간이 데모해 가지고 월급도 올리고 노동법에 정해진 대로 8시간만 일하고, 우리보다 환경도 훨씬 좋게 하고 그런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니 그런 것도 있구나, 눈이 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탈출구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내 삶에서 변화를 찾고 싶었고 이런 견디기 어려운 현실을 바꾸고 싶었는데, 동일방직에서는 노동조합이란 게 있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면 아이고 나도 저기 들어가서 노동조합인지 뭣인지 해야 되겠다고 맘을 굳게 먹게 됐지요. 한마디로 희망이 생긴 겁니다.

●마침 그때 동일방직에서는 노조활동을 하다 많은 사람이 퇴사하고 그래서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이가 안 돼서 언니 몰래 언니 주민등록증에다 내 사진을 오려붙여 가지고 가서 동일방직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막상 동일방직에서 일을 해보니까 대성목재 검사과 일은 정말 일도 아니었습니다. 말이 8시간 일한다 뿐이지,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으니까 쉬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에 쫓겨서 일하다보면 일이 얼마나 힘든지 훈련받는 6개월 동안 노다지 코피를 쏟아 못 견딜 정도였습니다. 내가 여기를 꼭 오고자 했고 뭔가를 찾기 위해서 왔다는 정신력으로 이를 악물고 죽기살기로 견뎠지, 그렇지 않으면 일찌감치 포기하고 그만뒀을 것입니다.

동일방직에 처음 들어가서 저는 참말로 고되긴 했지만 솔직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노동조합에서 뭐 더 해 달라고 데모하고 그러는 게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 당시 언니가 대성목재 5년 다니고 임금이 7~8천원 이었는데, 제가 동일방직 입사해서 첫 월급이 8시간 일하고 9천 원 정도 받았을 겁니다. 거기다 일하고 나면 공중목욕탕이 있어 목욕할 수 있지, 공동 빨래터 있지, 큰 식당이 있어 가지고 따뜻

한 밥을 그때그때 해서 주지, 판자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기숙사 있지, 공동휴게실에는 텔레비전 있지, 도서실 같은 문화시설 있지 뭐 이런 일도 있나 싶었습니다. 신분이 달라지는 기분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 당시를 비참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만약 자취 생활을 했다고 하면 전혀 그렇게 살 수 없었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동일방직의 근로 조건은 대성목재나 부산의 신발공장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무시간이 끝나면 아주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내 시간이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최소한 내가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생각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본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내 생활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검정고시를 보려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4시에 퇴근하니까 얼마나 행복하던지 그제서야 공장 주변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다가 고아원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친구들을 조직해서 고아원에 가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빨래도 해주고, 누나 언니가 되어 주고 하는 그런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뜻이 있어서라기보다 제가 워낙 고생을 많이 하고 자랐고, 또 가서 보니 작은 힘이나마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었기에 나눔의 시간을 갖게 된 것뿐입니다. 노조 활동보다 봉사 활동을 먼저 했지요.

●저는 양성일 때 노동조합 사무실에 갔습니다. 그때 지부장이던 이영숙 언니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습니다. 노조 활동을 하면 모든 근로 조건이 개선되고 하지만 회사는 적극 반대를 한다, 노조에 대해 알려고 애쓰거나 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많은 고통을 주고, 특히 양성일 때 노조 활동을 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을 알려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부장 언니는 당시 직포과 대의원으로 있던 문명순 언니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언니가 주는 글은 밤새워 읽다시피 하고 노동조합에 관한 책도 읽고 하면서, 저는 그때 전혀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문명순 언니는 개성과 자립심이 강하고,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그런 똑똑한 지도자였습니다. 나중에 지부장 선거에 나가겠다고 하면서 언니는 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지금같은 투쟁 일변도가 아닌 다른 노동

조합을 모색하고 싶다는 것이었지요. 이총각 언니하고 지부장을 놓고 붙게 된 것인데 산업선교에서 문명순 언니를 회사의 앞잡이, 배반자, 프락치로 몰아 붙여버렸지요. 저는 처음에는 당연히 문언니를 지지했는데 100% 어용이고 회사측을 지지한다고 해서 언니가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저마저도 나중에는 문언니를 지지하지 않게 됐지요. 지금은 정말로 후회합니다. 문명순 언니는 절대 노동자를 배신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선거를 앞두고 어느 날 새벽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 더는 영욕의 회오리에 휩쓸리지 않게 됐지만 말입니다. 그때 노동조합 하면서는 사실 이런 말하기 어려운 구석도 있었습니다.

●당시 기숙사에는 자기 부서 중심으로 비밀리에 소모임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점조직으로 일종의 친목 모임 비슷한 클럽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친해지고 신뢰할 수 있는 인간 관계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산업선교로 이끌어갔습니다. 산업선교에 가서 탁구도 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의식이 달라지게 되면 의식화 교육을 받는 식이었지요. 저도 맨 처음 산업선교로 가니까 카인과 아벨에 관해서 얘기하더라구요. "카인아,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느님이 묻는 것처럼 노동자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하느님의 부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해하는 성서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조화순 목사님이 하시더라구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노동 형제들을 외면하는 삶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인가, 단결하지 않음으로 얼마나 노동자들이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강론의 내용은 정말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나체 시위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미리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우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조합 간부들은 경찰에 연행 연금된 상태에서 조합원들이 자연스럽게 조합간부 보내돌라고 농성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기동타격대가 에워싸더니 10분 내로 해산하지 않으면 잡아들이겠다고 계속 방송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30분도 안 돼 무지막지하게 치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름 작업복이 얇은데다가 미니스커트 차림 아닙니까. 맨 가장자리에 있던 조합원들부터 거칠게 때리고 치고 하면서 끌어 잡아당기니까, 옷이 금방 벗겨져 버리고 울음 소리와 비명 소리가 터져 나온 거지요. 그러자 누군가 울부짖듯이 외치더라구요. 그들만 부끄럽게 할 수 없다, 우리도 같이 벗자, 우리 모두 함께 부끄러워지자. 저는 지금도 그 울음 섞인 절규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다같이 벗으면 덜 부끄러울 것 아닙니까. 그 생각으로 똘똘

뭉친 거지요. 순식간에 모두 싹 벗어버렸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하려고 하니까 알몸으로 차 앞에 쫙 드러누운 것도 목숨과도 같은 동료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다들 잡혀갈 때 죽기살기로 도망치긴 했지만, 동료들이 잡혀가는 걸 숨어서 보며 함께 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동인천 유치장에 알몸의 여성노동자들이 칠팔십 명 가득 차 들어가 있는 모습을요. 아마 그런 가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안 잡혀 간 사람들이 옷 주워 입고 각자 (기숙사) 방 식구 옷 챙겨서 경찰서로 갔지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다 풀어놓으라고 떼거지로 데모했지요. 하루만에 금방 다 석방됐습니다.

흔히 70년대 민주노동운동에 대해 경제 투쟁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상투적인 평가를 하기도 한다. 물론 그들은 유신 철폐 같은 정치 투쟁의 구호를 내걸지는 않았다. 그러나 추송례 씨가 증언하듯이,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속에서 새로운 인간다운 삶의 길을 발견했고, 지배와 착취의 인간 관계가 아닌 신뢰와 사랑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대안의 인간 관계를 실천하고 있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단순한 근로조건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그처럼 목숨을 걸고 민주노동조합을 지켜내려 했던 것이다. 또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회사와 독재 정권은 민주노조를 없애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다.

동일방직은 일제 때 설립된 우리나라 굴지의 면방직회사였다. 동일방직 노동조합은 해방 후에 생겼는데, 한국전쟁 이후 대부분의 한국 노동조합이 그렇듯이, 회사의 노무관리 기구에 가까운 어용 노동조합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71년 한국 최초로 여성 지부장이 선출됐고, 이때부터 노동조합이 노동 조건의 개선을 회사에 요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면서 회사와 불편한 대립 관계를 맺게 됐다. 추송례 씨가 입사 당시 경험한 동일방직의 높은 근로조건은 이같은 노동조합의 투쟁 성과물이었다. 당연히 회사와 당시의 유신 정권은 노조를 탄압하기에 이르렀고, 탄압의 방식으로서 섬유 본조와 남성 조합원들을 부추겨 노조를 회사 노조로 바꾸려 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됐고, 1976년 추송례 씨가 경험한 나체 시위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그간의 노동조합 탄압을 알리는 보고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경찰이 지부장과 간부를 연행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시작된 농성이 계기가 된 것이었다. 이후 노동조합은 숱한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그리고 결국 1978년 지부장 선거를 위한 대의원 대회가 똥물투척 사건으로 무산되고, 124명의 열성 조합원들이 집단 해고를 당하고 만다.

이 당시는 파시즘에 버금가는 서슬 퍼런 유신 시대, 긴급조치 9호라는 악몽의 시대였다.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집회와 시위, 표현과 결사의 자유조차 족쇄로 묶여져 있었고, 몇 사람이 모여 한숨만 쉬어도 중앙정보부로 끌려가던 공포의 시절이었다. 그런데 이런 감옥과도 같은 거대

한 시대의 벽 앞에서 청계피복노조, 원풍모방노조, 와이에이치노조 그리고 동일방직노조 같은 민주노동조합의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부르짖으며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자 했다. 이것을 어찌 경제 투쟁에만 머물러 있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체시위 사건이 있은 뒤 조합장 선거 날 그 유명한 똥물 사건이 터졌습니다. 새벽반을 마치고 제일 먼저 투표장으로 갔던 저는 사냥개처럼 날뛰는 회사 앞잡이들로부터 머리에서 발끝까지 똥을 뒤집어쓴 채 현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뛰어갔다가, 내 모습을 본 동료들이 피해서 달아나는 것을 보고는 정말 너무도 서러워서 잔디밭에 주저앉아 그냥 목놓아 울어버렸습니다. 다른 동료들의 분노와 서러움에 현장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부장 선거가 똥물 사건으로 무산되고 나서, 회사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해 3월 10일 노동절 행사장에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장충체육관으로 간 거지요. 플래카드를 펼치고 유인물을 뿌리면서 모두 일어나 "동일방직 문제 해결하라, 노동3권 보장하라, 똥은 먹고 못 살겠다"고 소리를 지르니, 그렇게 가슴이 시원해지고 막혔던 것이 뚫린 것처럼 두려움도 없어지고 좋드만요. 사복 경찰들에게 개처럼 두들겨 맞아 머리가 깨지고, 여기저기 피투성이가 되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쳐봐도 세상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조합원들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신세로 불안한 나날을 보냈고, 마침내 조합 간부들은 조합원들의 희생을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어 명동성당에서 죽기로 결심하고 단식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함께 참여한 사람이 124명이었습니다. 회사와의 마지막 협상이 깨진 뒤 그 124명이 모두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회사측에서 몇 번의 시한을 정해 그때까지 현장에 복귀하면 해고시키지 않겠다는 제의를 했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거부하곤 했습니다. 지금이니까 말이지만 그때 저는 단식 끝나고 피를 토하며 무조건 현장 안으로 들어가 싸우자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견뎌내면서 현장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노동조합을 살려내자, 이미 선거는 끝났는데 선거 이전 상황으로 되돌려 놓으라는 요구는 어려운 게 아니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힘으로 집행부를 바꾸면 되지 않느냐고 했지요. 그런데 당시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것은 솔직히 현장

안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통대 대의원 선거에 섬유노조 위원장 김영태가 부산에서 출마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영태가 누굽니까. 우리 노동조합을 깨는데 앞장 선 더러운 인간이 통대 대의원으로 나가 출세한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그대로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나를 비롯해 몇 명이 인천 지역에서는 도저히 취업이 안 되니까 아주 멀리 부산쯤 가서 현장에 취직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 싶었습니다. 비밀리에 인쇄물을 찍어 쇼핑백에 담고서는 20명이 각자 부산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지오쎄 사람들 10명과 함께 3명이 한 조로 김영태 출마 지역을 나누어 유인물을 뿌렸지요. 태화쇼핑 뒤로 점포동이 제 구역이었는데, 버스에서 뿌리려고 탔다 도저히 떨려서 못 하고 군부대 뒤 주택가부터 정신 없이 던져댔습니다. 다 뿌리고 나서는 수녀원에 가서 피해 있었습니다.

●이때 참으로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믿었던 언니가 경찰에 연락해서 다 붙잡히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그게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 언니를 용서할 수는 있지만 도무지 이해는 하지 못하겠더군요. 그 언니를 만나기로 한 다방에서 형사들에게 끌려 부산 남부경찰서로 갔는데, 아이고 서울이나 인천 경찰서는 신사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우리가 준비했고 유인물도 제가 직접 썼는데 조화순이 시키지 않았냐, 조화순이 배후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공순이가 뭘 했겠느냐는 것이었죠. 얼마나 맞았는지 온몸이 붇고 얼굴도 피멍이 들어 눈도 떠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부산교도소로 넘어갔을 때 저는 고문 없는 그곳이 천국만 같았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저는 곧바로 동일방직에서 퇴직금을 받아, 부산으로 내려와 산동네 쪽방을 하나 얻어 살면서 삼화고무 운동화 만드는 부서에 취직했습니다. 고무공장은 워낙 노동자들 이동이 심해서 취직은 쉽게 됐습니다.

삼화고무에서도 저는 봉사활동부터 시작했습니다. 몇 사람이 회비를 모아 고아원에 떡과 과자를 가지고 가서 함께 놀고 오는 것이었는데, 어느 날 그게 알려져서 한두 달만에 제가 운동화 부서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고무공장 노동자들이 조금씩 힘을 보태 봉사활동에 나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삶의 변화란 돈이나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

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툭하면 임금을 몇 개월씩이나 체불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을 설득해서 어느 날 월급 안 받고 일할 수는 없다고 운동화 부서 사람 전부 모이게 해, 일손 놓고 퇴근 때까지 노래 부르며 놀았지요. 회사의 반응은 신속했습니다. 당장 내일 월급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신속하게 사무실로 저를 부르더군요. 서류를 내놓더니 빨갱이가 어디 와서 물들이려고 그러냐고 큰 소리 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대놓고 막나갔습니다. 월급 돌라고 하는 게 죄냐, 아이고 짤라주면 고맙다, 운동화 부서 사람 다 데리고 나가 반장 좀 해야 되겠다고 말입니다. 신발공장은 워낙 임금이 낮고 이동이 심해 조장이나 반장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공장 저 공장 옮겨 다니는 게 관례였습니다. 오히려 당황한 것은 회사였습니다. 회사가 깨끗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현장 분위기가 백팔십도 바뀌었습니다. 고무공장은 싸움도 잦고 결근율도 높고 그랬는데 결근 없어지지,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지, 즐겁게 일하면서 생산능률 올라가지 한마디로 회사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연스럽게 모임이 형성됐고 나중에는 국제상사, 진양화학, 동양고무 등 7개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되어 1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임을 갖게 됐지요. 삼화고무 팀 사람들하고는 지금도 친형제처럼 연락하며 지냅니다.

●모임이 활발해지면서 모임을 지도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우연히 소개받은 사람이 전남대를 나와 부산병무청에서 일하고 있던 이승현 씨였습니다. 말수도 적고 열심히 우리 모임을 도와주고 그러다 어느 날 몸이 아픈 그 사람을 보고 제가 먼저 짐보따리 싸서 그 사람 자취방으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 사람 방이라야 쌀 봉지 하나, 이불 하나였고 나도 살림이라야 가방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아아 참 제 연애얘기를 하자면 책을 하나 써도 모자라지요. 너무나 행복하고 또 아픈, 그러면서도 후회 없는 사랑이었으니까요.

●얼마 뒤 아이가 생겼어도 저는 공장에 계속 다녔습니다. 아이는 주로 남편이 모임을 지도하면서 봤습니다. 남편은 병무청 그만두고 현장 생활한다고, 고무공장도 다녀보고 조선공사도 다녀보고 그랬지만 워낙 몸이 견디지를 못해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심하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 하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어떤 아픔을 겪었습니까. 아이에게

만큼은 그것을 고스란히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그만두고 아이 돌보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화장품 외판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 업고 화장품 보따리 양손에 쥐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려면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합니다. 남편은 철도청 기관차 사무소에 일용근로자로 취직했습니다. 화장품 외판원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저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도 엄청 벌었습니다. 노동자 월급이 10만 원일 때 1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으니까요. 제가 전국 판매여왕도 했다 아닙니까. 다 노동자들 덕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노동자들이 알아서 팔아줬으니까요. 거기다 공장생활 할 때는 시간이 없었는데, 화장품 외판원 하면서는 시간이 생기면서 제가 '움직이는 노동상담소'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이 여러 개 있는 독채 전세를 평지에다 얻어 노동자들 모임방을 만들고 그랬지요. 참 몸은 고달팠지만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하려고 나가던 남편이 그대로 쓰러지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얼이 빠져 맥을 탁 놓고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행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멍하니 있던 어느 날 딸애가 엉엉 울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죽지마, 아빠 죽은 게 나도 슬픈데 엄마가 죽을까봐 꾹 참고 있었어,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제서야 저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내게 한 영혼을, 자신이 끔찍하게 사랑하던 딸애를 남겨 놓고 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사무쳐 왔습니다.

남편과 나는 영혼이 통하는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루를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끝내고 그랬습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자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남편의 시신을 기증해서 두 사람이 시력을 되찾았듯이 나도 다시 삶의 힘을 찾아야겠다고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성당의 한 친구가 맹인선교회 후원금을 모아주고 있는데 저보고 자꾸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넋이 빠져 있으니까, 아무 활동이나 시켜 마음을 바꿔보려고 그런 겁니다. 한 15평 되는 곳에 칠팔십 명의 맹인이 콩나물 시루처럼 모여 미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인사를 하는데 한 사람은 이쪽을 향해, 또 한사람은 저쪽을 향해 전부 뒤죽박죽이더라구요. 도와주지 않으면 어느 쪽이 앞인지 뒤인지 분간을 못하니 당연한 일이었지요. 어휴 얼마나 안타깝던지 가슴이 미어

지겠더라구요.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내 성한 팔은 팔이 없는 사람들의 팔이 되어 주고 내 성한 눈은 눈이 없는 사람들의 눈이 되어 주자, 사지육신이 멀쩡한 사람이 남편 죽었다고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추송례 씨의 짧지 않은 삶은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고 늘 봉사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었다. 딸애의 한마디에 정신을 차린 그는 8개월 동안 1백 장이 넘는 탄원서를 쓰면서, 원호청과 연금공단 등을 쫓아다니며 공무원들에게 남편의 죽음을 과로사로 인정받는 싸움을 벌였고, 결국 인정받게 됐다. 그것은 산재보상 분야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진전이었고 성과였다.

그는 자연스럽게 또 맹인선교회에 나가 앞못보는 사람들의 눈이 되어주는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게 된다. 전남편의 시어머니와 재혼을 상의하고, 그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찬성으로 재혼을 하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우리는 소설이 아니라 현실로서 들으며, '그래 삶은 이렇게 넉넉해야 한다'는 부러움을 떨칠 수 없었다. 맹인인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두며 이제는 대학생이 된 딸애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갖게 된 것도, 순전히 그의 이런 봉사 활동이 가져 온 인연을 소중하게 이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추송례 씨가 찾고자 하는 새로운 삶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 지난날 저의 삶은 불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 자신을 불태운 것에 대해 조금 만치의 후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땅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의 온갖 생명이 움트고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보드라운 흙이 되어 모든 것을 덮어주는 땅을 닮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노라니 살아 있는 매 순간이 기쁘고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

박승옥 gileseo@hanmail.net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관리실 기획팀장. '공동선' 편집주간